

EPC 來年 3月 發効確實

—西獨등 21個國이 加盟—

國際工業所有權保護協會(AIPPI)에 따르면 유럽特許條約(EPC)은 1977年 3월에 發効하여 그 1년 뒤인 78년 3월부터 同條約規定에 依據한 出願을 接受하게 될 것이 거의 確實하다.

유럽域內 共通特許制度가 될 이 EPC는 EC 9個國과 유고 등 都合 21개국이 加盟하게 될 것이며 加盟國間에는 國境없이 特許의 出願, 審査, 登錄, 異議申請이 同一化되어 特許權을 許與한다는 것이다.

同條約이 發効되기 전에 西獨은 지난 6月 이미 加盟批准하였으며 프랑스·네덜란드·스위스 등은 年內에, 英國은 來年 봄쯤에 비준

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출원업무의 開始는 78년 3월, 심사개시는 79년 3월쯤이 될 것이며 유럽統一特許局은 西獨뮌헨에 設置하고 初代局長은 네덜란드 特許廳長인 존 벤젠이 就任한다.

이 機構는 調査, 審査, 異議, 審判, 管理行政, 法律, 國際涉外 등 7個局으로 分授되어 가맹국에서 派遣된 約 500명의 審査官이 業務를 處理하고 國際特許協會(IIB)는 헤이그의 事務局에서 同條約의 調査業務를 分擔하게 된다.

또한 이 기구가 始務하면 年間 3~40,000件的 출원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推測들이다.

過當出願抑制에 事前調査制

—日, PCT加盟을 對備策으로—

요즘 日本에서는 工業所有權에 대하여 우리로서 理解하기 힘든 事態가 버려지고 있다. 그 例로서는 特許官署 責任자들이 財界나 大企業에 대하여 特許出願을 신중히 해달라는 勸告를 들 수가 있다. 메스컴이 傳하는 그 理由인즉 特許와 實用新案出願이 激增하기 때문에 審査가 遲延됨으로서 滯貨가 累增되는데 따른 것이며 특히 法人出願이 急增하고 있음을 例示하고 있다.

片山特許廳長官은 研究開發이

나 특허출원에는 事前調査를 충분히 하여 精選主義를 願한다고 그의 所信을 털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日本의 이러한 動向은 出願件數面에서 特許先進國인 美·西獨 등도 年間 10萬件 정도의 특허출원인데 比하여 日本은 그 3~4배에 達하는 30만건 이상을 출원하고 있으며 그 伸張率은 年5~6%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출원의 급증원인 은 拒絕되는 國內出願이 많은데



國際動向

反하여 國外出願이 적을뿐 아니라 防衛特許가 많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摘示하면서 그동안 登錄된 특허에 아이디어特許를 認定한 것도 列擧하고 있다. 특히 아이디어 특허를 지적하는 이유는 등록에 그치고 실지를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일본의 오늘의 研究開發里程은 中進國이라는 것이 그들 專門家의 見解이며 그 實證으로는 특허출원의 折半이 거절되고 實施率도 형편없음을 들고 있다. 이러한 直接的인 原因은 發明의 過當 競争에도 緣由하거나와 獨創의인 연구 부족, 특히 特許文獻에 의한 事前調査를 허술이 하는 까닭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審査請求의 適正化를 위하여 審査基準의 統一, 事前調査의 完璧, 産業界와의 協力體制 構築등을 目標로 9月부터 各體企業과 個別接觸을 開始하였다. 특히 大企業에의 協力 要請의 근거는 1974年 中 上位 10大企業의 출원 건수는 전체의 32%, 20대기업은 39% 50社는 무려 50%에 이르러 10년 전보다 倍 以上으로 急增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美國의 自國內 出願은 IBM도 年間 1千件 정도인데 日本은 2萬件 이상을 출원하는 기업이 있으므로 앞으로 正進주의를 勸함으로써 이를 抑制하려는 傾向이며 77년에 發効될 國際特許協力條約(PCT)에의 加盟에 對處하기 위해서도 審査의 促進이 不可避하다는 結論에 到達하고 있다.